



## 사실을 초월한 유토피아

- 「이어도」를 읽고-

성 현 주\*

옛날 제주도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서 그 저승의 삶을 누린다는 죽음의 섬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섬을 이어도라 부르고 그 섬을 꿈에선지 환각에선지 그 섬을 본 사람은 예외 없이 며칠 후엔 곧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죽음의 섬이 제주도 사람에게는 구원의 섬이기도 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모순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섬으로 가서 저승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희망 때문에 이승에서 어떤 괴로움도 달게 견딜 수가 있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의 공감이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도란 제주도 섬생활이 힘들어서 어떤 위로 같은 것을 받으려고 상상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옛날 민요에도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그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주도 어부들에게선 이어도가 아닌 이어도와 비슷한 파랑도라는 또 하나의 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파랑도에 관한 소문은 이어도와는 달리 좀더 구체적으로 퍼져 나아갔다. 큰 바다에 어느 물길 한굽이에 잿빛 파도를 깨고 솟아오른 파랑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 어부들이 곳곳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가 얽히고 더 구체적인 관심속에서 소문의 근원을 따지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옛 이어도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이어도에 관

\* 해사대학 해양경찰학과

해서는 언젠가 그 곳을 보았노라는 사람의 전설도 남아있고 이어도에 관한 분명한 민요까지 남아 있으니 사람들은 이어도의 전설이 파랑도의 실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어도나 파랑도의 실재 유무를 떠나 생각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설이 쓰여진 배경이나 계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섬생활이란 바다나 또 다른 섬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것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섬사람들은 자연히 바다나 섬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많이 접해서 바다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으면서도 바닷물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 양수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무의식 속에는 물이나 바다에 대한 동경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던 간에 그 사랑의 한 방식으로 파랑도나 이어도의 전설이 만들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왜 꼭 바다를 소재로 하고 주인공들은 왜 바다로 나가느냐는 것이다. 바다를 소재로 하는 이유는 자연의 신비를 풀기 위한 인간의 심리 표출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바다는 인간에게 어떤 좋은 점만을 가져다주지 않고 많은 시련, 공포, 야심을 안겨 주는데 왜 바다로 굳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인데 해답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향수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바다의 색은 생명체의 궁극적인 영양소를 광합성 시키는 엽록소의 색과 같은 초록색이다. 그리고 바다는 우리 모두의 발원지인 동시에 고향이기 때문에 인류가 바다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파랑도의 실재 가능성은 이어도의 전설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파랑도 수색전을 펼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파랑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작전을 2주간에 걸쳐 치밀하게 펼치게 되었다. 그 결과 마라도를 제외한 제주도 남단으로부터 동지나해 일대의 해역에는 어떤 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밝혀졌다. 섬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짐으로 인해 작전 임무 자체는 그런대로 완수 되었지만 작전 중 한 가지 사고가 있었다는

게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개운찮다. 그것은 바로 파랑도 수색 현장 취재를 위해 출항날부터 작전 함정에 함께 승선해 온 천남석 기자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작전 수행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건 사실이나, 배에서 같이 지낸 선우현 중위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이나 경위를 천남석 기자가 속해 있는 남양일보사에 알려야 하므로 남양일보사 편집국장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오히려 천남석 기자 실종 사고를 더욱 더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선우현 중위가 일부러 남양일보사까지 찾아가서 유감을 표하였으나 문제는 그 편집국장의 태도였다. 천남석 기자의 실종사고에 대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데 천남석 기자가 자살했을 거라는 단정을 짓는 것이었다.

중위의 입장만 편하게 해주고 있었다. 중위도 천남석 기자가 섬을 찾지 못한 실망감 때문에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장의 단정적인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장의 강요에 의한 술집 이어도의 방문과 천남석의 여자와의 정사를 차례로 거치면서 중위는 이해되지 않던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 관한 수수께끼를 모두 풀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중위와 국장의 대화를 통해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대충 큰 내용만 적어보면 천남석은 어렸을 때부터 이어도와 밀접히 접하면서 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 다른 사람처럼 쉽게 섬을 사랑할 수 없었다. 오히려 두려워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섬을 외면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내면 속에는 누구보다 섬을 떠나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 하는 것이 또 다르게 섬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다. 그런데 왜 천남석 기자는 자살을 했는가. 그것은 천남석 기자 자신도 그가 이어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 섬을 보고 정직하게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소설은 탐색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되어 진다. 그러므로 다른 소설에서보다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탐색의 목적과 주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탐색의 목적, 탐색의 목적은 이어도로 불리는 섬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도의 실체를 주체는 두 명으로 한 사람은 선우현 중위이고 다른 또, 한사람은 천남석 기자다. 선우현 중위는 이어도의 실체를 사실의 차원에서 확인하려는 해군부대의 정훈장교이

다. 반면 천남석 기자는 이어도는 어디까지나 허구의 섬이지만 그 허구의 섬은 가짜가 아니라 어떤 진실성을 내포한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인간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해군부대 소속의 선우현 중위는 철저하게 사실을 중시하는 소박한 사실주의자이고, 천남석 기자는 사실 너머의 허구를 중시하는 관념주의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천남석 기자의 죽음이다. 천남석 기자의 죽음이 이 소설의 진행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제 선우현 중위에게 죽은 천남석 기자는 또 하나의 탐색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사실만을 중시하던 선우현 중위는 천남석 기자의 상관인 양주호 국장과의 대화, 술집 〈이어도〉의 방문, 천남석의 여자와의 정사를 통해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 예상롭지 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 판단의 핵심 내용은, 이어도는 바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실의 섬이 아니라 천남석 기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허구의 섬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더불어 선우현 중위는 천남석 기자의 죽음으로부터 천 기자 스스로가 구원의 섬 이어도가 되려는 염원을 발견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어도는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섬으로 증명된다. 사실만을 중시하던 선우현 중위는 결국 천남석 기자와 양주호 국장의 허구 중시의 논리에 점차로 동화한다. 특히 천기자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전해 들으므로써 더 쉽게 동화된다.

천기자의 어린시절은 가난과 아버지 부재, 어머니의 하염없는 기다림, 아버지의 죽음, 이어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연속되는 고통의 나날이다. 그런 까닭에 어린 천기자에게 이어도는 그를 구원해주는 유토피아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그는 어린시절부터 허구의 세계에 의지하여 사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몽들을 견디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천기자만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섬 사람으로 태어나 스스로 구원의 섬이 되고자 한 제주도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천기자에게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어도」를 이런 식으로 읽을 때, 우리는 다시 허구의 의미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 작가는 「이어도」를 통해 허구는 결코 가짜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실만을 중시하는 논리가 더 큰 문제라는 것, 허구는 단순한 사실을 초월하여 진실한 유토피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